

各國漢字音의 輕唇音化에 대한 比較考察

-陰聲韻을 중심으로-

李京哲*, 李相怡**

kanzi22@empal.com/ zzivi@hanmail.net

Contents

- I. 序論
- II. 本論
 - 1. 微韻의 反映
 - 2. 廢韻의 反映
 - 3. 虞韻의 反映
 - 4. 尤韻의 反映
 - 5. 聲母別 反映 樣相
- III. 結論

Abstract

韻鏡の3等韻には、切韻音まで重唇音(幫・滂・竝・明母)であったものが秦音に至って輕唇音(非・敷・奉・微母)に変わっている韻が存在する。それは、微・廢・虞・尤・陽・東(3等)・鍾・文・元・凡韻の10ヶ韻に現れ、東(3等)韻と尤韻の明母字以外は全て輕唇音に変わっている。

本稿では、輕唇音の出現する10ヶ韻の中で、陰聲字に該当する微・廢・虞・尤韻の4ヶ韻について、各國漢字音の比較分韻表を作成して、唐代の秦音で発生した輕唇音がどのように反映されているかを考察した。その結果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になる。

1) 吳音は、南北朝期の南方系字音を母胎にしているので、時期上、輕唇音を反映しない。

2) 漢音は、日本語の音韻體系上、p系の重唇音とf系の輕唇音との區別が存在しないので、聲類においては輕唇音の反映が見られないが、韻類には輕唇音を明確に反映している。元韻・尤韻においては、牙喉音字と唇音字との字音形の相異から確認できる。

3) 韓國漢字音は、聲母においては、輕唇音の反映が全然見られない。ただし、韻母においては、輕唇音を反映する層と輕唇音を反映しない層が混在しているが、輕唇音を反映しない層の比率が遥かに高い。秦音の反映は、尤韻明母の-o形例から確認できるし、他の音形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日本語音韻論.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日本語音韻論.

からは韓國漢字音が秦音以前の層を母体に行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

4)越南漢字音は、聲母と韻母、兩方とも輕唇音を反映している。まず、聲母においては、幫・並母をbで、非・奉母をphで、そして、明母をmで、微母をvで弁別して受容していることから輕唇音を反映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しかし、聲類・韻類母ともに、輕唇音化以前の層が混在している。微韻の-i形、廢韻の-ε形、虞韻の-o形と-u形、尤韻の-u形等は輕唇音化を反映している字音形であり、微韻の-j形、虞韻の-ɔ形と-a:u形、尤韻非・敷・奉母字の-au形と-uu形等は輕唇音化以前の層を母胎に行している字音形であると考えられる。従って、今まで、秦音を母体に行していると知られている越南漢字音については、各韻別の詳しい検討が要求される。

5)チベット資料も、聲母と韻母、兩方とも輕唇音を反映している。聲母においては、微母がo、u、wなどの母音で現れることから輕唇音を反映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しかし、聲類・韻類母ともに、輕唇音化以前の層が混在している。微韻の-i形は輕唇音化を反映している字音形であり、微韻の-j形と-e形は輕唇音化以前の層を母胎に行している字音形であると考えられる。

Key Words : 輕唇音, 重唇音, 漢音, 字音形

(Labiodental, Labial, sino-japanese *kan'on*, Notations of chinese characters)

I. 序論

韻鏡の 3等韻에는 切韻音까지 重唇音(幫・滂・並・明母)이었던 것이 秦音에서는 輕唇音(非・敷・奉・微母)으로 바뀐 韻이 존재한다. 이는 微・廢・虞・尤・陽・東(3等)・鍾・文・元・凡韻의 10개韻에서 나타나며 東(3等)韻과 尤韻의 明母를 제외하고는 모두 輕唇音으로 變化하였는데, 본고에서는 輕唇音이 나타나는 10개韻 중에서 먼저 陰聲字에 해당하는 微・廢・虞・尤韻의 4개韻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輕唇音化의 발생원인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平山久雄(1967)에서, 日本 漢音에 나타나는 輕唇音化의 반영에 대해서는 沼本克明(1982)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韓國漢字音의 輕唇音化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李京哲(2012)에서 언급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合口性의 弱化・喪失과 拗介音의 脫落現象에 따른 輕唇音化에 수반된 각 聲母와 韻母의 變化가 日本吳音, 日本漢音,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 티벳漢字音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比較分韻表를 통해 고찰한

다.

日本漢字音의 吳音은 5세기를 전후해서 중국 남부의 字音이 百濟를 통해 日本에 전래된 字音이며¹⁾ 日本漢音은 8세기에 日本의 遣唐使들이 들어온 唐代 長安音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吳音은 輕脣音化를 반영하지 않은 字音形을 보이고 있으며 漢音은 당연히 輕脣音化의 영향을 받은 字音形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他國 漢字音에 輕脣音化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吳音과 漢音의 字音形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輕脣音化가 일어난 10개韻 중에서 陰聲韻字에 해당하는 4개韻에 대해 日本吳音, 日本漢音, 韓國漢字音, 베트남漢字音, 티벳漢字音의 比較分韻表를 작성하여, 각 韻別로 各國漢字音에서 輕脣音化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比較·分析해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韓國漢字音 및 베트남漢字音, 티벳자료가 어느 시대의 字音을 母胎로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비율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各國漢字音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하였다.

韓國漢字音: 新增類合, 訓蒙字會, 千字文²⁾

日本吳音: 法華經, 般若波羅蜜多經, 新譯華嚴經, 光明真言, 承曆音義, 類聚名義抄³⁾

日本漢音: 蒙求, 群書治要, 三藏法師傳, 本朝文粹, 佛母大孔雀明王經⁴⁾

베트남漢字音: 三根谷徹(1993)『中古漢語と越南漢字音』의 越南漢字音對照表

1) 일본 吳音이 5세기의 중국 남부지방음을 母胎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필자는 기존에 동일한 吳音體系로 간주되었던 上代記紀万葉의 借字表記字의 字音體系과 吳音直讀資料의 字音體系는 분리되어야 하며, 기존의 吳音한반도경유설은 日本書紀의 漢音층을 제외한 上代記紀万葉의 借字表記字의 字音體系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논하기로 한다.

2) 權仁瀚(2005)를 참조하였으며, 新增類合은 1957년간 金東旭博士 소장본, 訓蒙字會는 초간본이라고 하는 叡山文庫本과 東京大学 中央図書館本, 千字文은 光州版의 東京大学 中央図書館本과 石峰千字文의 초간본인 日本国立文書官本에 해당한다.

3) 法華經은 小倉肇(1995), 般若波羅蜜多經은 김정민(2007), 新譯華嚴經은 榎木久薰(1988), 光明真言은 榎木久薰(1989), 承曆音義는 小倉肇(1979), 類聚名義抄는 沼本克明(199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4) 蒙求·群書治要·三藏法師傳·本朝文粹는 佐々木勇(2009)의 資料編에 실린 分韻表를, 佛母大孔雀明王經은 李京哲(200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티벳漢字音: 高田時雄(1988)『敦煌資料による中國語史の研究』의 分韻表

II. 本論

이하 輕脣音化가 일어난 각 韻별로 각국 漢字音의 比較分韻表를 작성하여 분석해 가기로 한다. 먼저 牙喉音字의 반영예를 제시하고 이하 脣音字의 반영형을 제시하여 牙喉音字와 脣音字의 반영형을 비교하여 輕脣音化를 반영했는지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각 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牙喉音字이며, 나머지 부분이 脣音字이다. 韓國漢字音은 SK로, 日本漢字音 중 吳音은 SJG로, 漢音은 SJK로, 베트남漢字音은 SV로, 티벳자료는 ST로 약칭하며 ST는 전기와 후기⁵⁾로 나누었다.

각국 한자음의 比較分韻表를 비교의 편의상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하였다.

(1)中古漢語 多音字의 他韻을 나타내는 字音形은 제외하고 해당 韻을 나타내는 字音形만 기재한다.

(2)SJG와 SJK에서 다음과 같이 音韻變化에 따른 表記上의 相異는 인위적으로 통일했다.

*脣內鼻音韻尾는 「ム」로, 舌內鼻音韻尾는 「ン」으로, 脣內入聲韻尾는 「フ」로, 舌內入聲韻尾는 「ツ」로 통일한다.

*母音「ウ」를 「フ」로 表記한 것은 「ウ」로 고쳐 썼다.

*ア行·ワ行의 혼동례, 力行合拗音의 혼동례, -au형·-ou형의 혼동례, -eu형·-jau형·-jou형의 혼동례는 古形으로 고쳐 썼다.

*SJG에서는 濁字에, SJK에서는 淸濁字에 濁音符를 인위적으로 통일해서 표기한다.

(3)SJK에 나타나는 명백한 吳音形의 혼입이나 SJG에 나타나는 명백한 漢音形

5) 티벳 전기자료는 高田時雄의 1류그룹(8~9세기 자료)에 해당하며, 金剛經, 阿彌陀經, 大乘中宗見解, 天地八陽神呪經, 法華經普門品, 寒食編, 唐蕃會盟碑, 雜抄, 金剛經코탄文字가 이에 해당한다. ST 후기자료는 高田時雄의 2류그룹(9세기 이후 자료)에 해당하며, 千字文, 南天竺國菩提達磨禪師觀門, 道安法師念仏讚, 般若波羅密多心經, 法華經普門品이 이에 해당한다.

은 제외한다.

(4) SV에서 Chữ Quốc Ngữ表記는 비교의 편의상 聲調表記를 생략하며, 三根谷徹(1993:268)와 朴炳采(1990:40-100)의 표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국제음성 기호로 수정하여 표기한다.

ă→a:, â→ə:, ư→u, ê→e, e→ɛ, ô→o, ơ→ə, o→o
 ia/iê→iə, ưa/ươ→uə, ua/uô→uə
 c/q→k, ng→ŋ, y→j

(5)ST에서도 비교의 편의상, 聲調表記와 '(a-chung)기호는 생략하며, 국제음성 기호를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ng→ŋ, y→j

1. 微韻의 反映

〈表1〉 微韻 牙脣音字의 各國漢字音 比較表

聲母	SJG	SJK	SK	SV	ST전기	ST후기
見k	ク 𠵼 婦 鬼 貴	ク 𠵼 婦 鬼 貴	귀 鬼 貴 婦	kui 婦 鬼 貴 贖	ku 鬼 婦 貴	gju 鬼 貴 kwi 貴
影?	𠵼 威 畏 慰 尉	𠵼 威 慰 尉 畏 尉 蔚	위 威 慰 威 畏 외 畏	ui 威 威 威 畏 尉 尉 蔚 尉 慰 慰 oai 威	u 威 畏	ui 威 畏 ju 畏
非f	匕 非 飛 匪 誹	匕 非 匪 誹 滂 沸 緋 扉	비 非 匪 扉 浬 飛 滂 沸 緋 緋	phi 非 匪 扉 飛 驕 誹 匪 浬 滂 沸 緋	phji 非 誹 phe 飛	pji 非
敷p ^b >f ^h	匕 妃 費	匕 斐 非 霏 妃 霏	비 妃 費	phi 妃 非 霏 霏 斐 非		
奉v>f ^h	匕 肥 翡		비 肥 翡	phi 肥 霏 翡 斐 翡	bi 肥	
微m>ᵐv	ᵐ 微 未 味	匕 微 未 尾	미 味 尾 微 微	vi 微 微 尾 未 味 mui 未	bji 微 味	wi 味

止攝의 微韻은 切韻音까지 -wi(6)이었던 것이 秦音에서 主母音이 介音 사이에 흡수된 이후 재차 3等 介音의 前舌化로 인해 -wii로 변하며, 그 脣音字는 輕脣音化로 인해 合口乙類介音 wi를 脫皮하여 -i로 변한다.

SJG는 牙喉音字가 -ui형으로 나타나며 脣音字는 合口性이 배제된 -i형으로

6) 필자는 撮口呼의 音韻再考를 통해, 合口3等 甲類韻은 -iw가 아니라 -wi로, 合口3等 乙類韻은 -iw가 아니라 -wi로 再構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李京哲(2009b)를 참조하기 바란다.

나타난다. SJG의 脣音字가 牙喉音字와 달리 合口介音 u를 배제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SJG는 명백히 輕脣音化가 일어나기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脣音 자체의 圓脣性으로 의해 合口性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SJK도 牙喉音字가 -ui형으로 나타나며 脣音字는 合口性이 배제된 -i형으로 나타난다. SJG와 동일한 반영이지만, SJK는 輕脣音化한 秦音을 母胎로 하고 있기 때문에 輕脣音化로 인해 合口乙類介音 wi를 脫皮하여 主母音이 -i로 변한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SK는 牙喉音字가 -ui형으로 나타나며 脣音字는 合口性이 배제된 -i형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合口性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輕脣音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SJG에서도 동일한 반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脣音 자체의 圓脣性에 의해 合口性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微韻 脣音字의 -i형은 字音形의 출현배경이 다른 吳音·漢音과 동형으로 韻母의 字音形만으로 輕脣音 반영여부를 판가름할 수는 없는 것이다.

SV도 牙喉音字가 -ui형으로 나타나며 脣音字는 合口性이 배제된 -i형으로 나타난다. SJG와 SJK 모두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SV의 脣音字가 輕脣音을 반영했는지 여부는 -i형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단지 微母를 v로 반영한 것은 명백한 輕脣音化 반영의 증거가 된다. [未vi·mui]의 경우 전자 vi는 輕脣音化된 형태이지만, 후자 mui는 合口性까지 유지하고 있는 重脣音이다. mui는 12支의 음에 해당하는 字音으로, 이처럼 SV가 秦音 이전의 층도 보수적으로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輕脣音化 이전의 脣音字는 -ui형이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脣音字의 -i형은 秦音을 母胎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ST는 牙喉音字가 -u형, -ui형, -ju형 등으로 나타나며 脣音字는 주로 -ji형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i형, -e형 등이 보인다. 주된 반영인 -ji형은 輕脣音化 직전의 -wii에서 脣音 자체의 圓脣性으로 인해 w만을 배제한 형태로 보이며 -i형이 輕脣音化를 반영한 층으로 보인다. -e형은 主母音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秦音 이전의 층이 混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廢韻의 反映

〈表2〉 廢韻 牙脣音字의 各國漢字音 比較表

聲母	SJG	SJK	SK	SV	ST전기	ST후기
影?	ㄱ穢 ワイ穢	エイ穢		ue穢穢	jwe穢	
非f	ハイ廢廢	ハイ廢 へい廢	페廢	phe廢廢		
敷p ^h >f ^h	ハイ肺	ハイ肺	페肺	phe肺 phi肺		
奉v>f ^h	하이吠 へ이吠	하이吠	페吠	phe吠		

廢韻은 切韻音까지 -wiei이었던 것이 秦音에서 3等 合口乙類 拗介音 wi가 wi로 前舌化하며, 이에 따라 主母音 역시 介音 wi와 韻尾介音 i⁷⁾ 사이에서 前舌化하여 -wiei로 변하며 脣音字는 輕脣音化로 인해 合口乙類介音 wi를 脫皮하여 -ai로 변한다.

SJG는 牙喉音字가 -wai형으로 나타나며 脣音字는 合口성이 배제된 -ai형으로 나타난다. SJG는 명백히 輕脣音化가 일어난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하고 있기 때문에 脣音 자체의 圓脣성에 의해 合口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SJK는 牙喉音字가 -wei형으로 나타나며, 脣音字는 SJG와 동일한 -ai형으로 나타난다. 비록 SJK의 脣音字가 SJG와 같은 字音形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原音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SJK는 秦音에서 輕脣音化로 인해 合口乙類介音 wi를 脫皮한 -ai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SK는 牙喉音字와 脣音字 모두 -jai형으로 나타난다. SK가 만약 輕脣音化의 영향을 받은 秦音의 -ai를 받아들였다면 [배, 패]와 같은 -ai형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輕脣音化 이전의 -wiei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脣音 자체의 圓脣성으로 인한 合口성의 배제에 따라 -ei형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廢韻이 3等甲類와 4等 開口音과 같은 拗音形의 -jai형으로 나타난다는

7) 필자는 韻尾 앞에 介在하는 介音을 「韻尾介音」이라고 칭하고, 中古音의 韻尾體系를 {(韻尾介音 Ø·w·i·i)+(韻尾 Ø·m·n·ŋ·p·t·k)}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李京哲(2003)을 참조하기 바란다.

점이 특이하다. 李京哲(2012)에서는 切韻音에서 -wiei이었던 것이 秦音에서 輕脣音化로 -ai로 변하기 이전에 -wiei화한 상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제기했는데, 이보다는 SJG의 [ㄷ이]처럼 主母音의 前舌性を 반영한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 즉 切韻音까지의 -wiei에서 合口性を 배제한 -iei는 e라는 單母音이 존재하지 않는 韓國語의 音韻體系 안에서는 -jæi형으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等 重韻에서 主母音 e를 포함하는 咸韻의 -jæp형, 皆韻의 -jæi형, 耕韻의 -jæŋ/k형에서도 前舌의인 主母音 e를 -jə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韓國語와 中國語의 音韻差異로 인한 音韻對替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SV는 牙喉音字가 -ue형으로, 脣音字는 대부분 -ε형으로 나타나며, -i형이 보인다. 喉音字가 -ue형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아 ei 내지 ai를 單母音 ε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脣音字의 ε형도 合口性만이 배제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脣音 자체의 圓脣性으로 인해 合口性を 배제한 것인지, 輕脣音化의 반영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단지 微韻의 [未mui]와 같이 脣音에 合口性を 반영한 字音形으로 볼 때, 秦音 이전의 층을 반영했다면 牙喉音字와 같은 -ue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i형은 開口 4等 齊韻에서도 -e형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止攝韻과 합류하는 중국 近代音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ST에서는 輕脣音의 例字를 찾을 수 없다.

3. 虞韻의 反映

〈表3〉 虞韻 牙脣音字의 各國漢字音 比較表

聲母	SJG	SJK	SK	SV	ST전기	ST후기
見k	ク俱拘矩句 クウ俱拘	ク俱駒矩拘蛄屨 クウ俱 コウ拘	구句俱拘駒矩 구꺄	ku俱矩渠蒟蛄句 瞿屨 kə:u俱拘拘駒	ku俱 khu俱	kju俱 kvi句
疑ŋ> ⁿ g	グ愚隅遇娛 グウ愚遇	グ隅娛虞愚遇寓 誤	우愚隅寓遇虞	ŋu娛虞愚隅隅侯 慶寓禹 ŋo遇	gu愚	gu寓
非f	フ趺夫扶膚鼻跗 俯斧付傅 フウ趺膚付	フ膚跗夫簠甫斧 賦傅鉄府俯鉄莆 籒 フウ賦 ホ甫	부夫膚付府俯拊 拊斧賦傅 포甫	phu膚夫扶扶跌 鉄鴉父斧付府俯 腑甫脯籒籒賦傅 bo脯 pho付傅	phu夫 pu夫 bu夫	phu夫 hvui付敷

敷 ^h	フ敷孚撫赴計仆 フウ敷	フ敷孚撫孚學仆 赴殍	부孚郢稔孛孛麩 敷赴 무撫	phu孚孚桴孛孛 敷撫拊剖 pho赴計仆 vu撫 thu赴		phu扶
奉 ^{v>f^h}	フ扶鼻父腐補輔 附 ブウ附	フ符扶鼻美 符父輔腐夫附膊	부父美符腐釜鼻 扶附鮒駙膊 보輔	phu符夫扶扶芙 颯鼻枹蚨父釜腐 附拊膊 pho鮒駙 bo符 bə:u颯	phu父	
微 ^{m>mv}	ム無无無侮武鶻 務霧鶻 ムウ無務	フ無誣舞武霧 孚侮鶻無庶務 ブ無无鶻 ブウ鶻	무無巫誣撫武鶻 舞庶無務霧 모侮鰲	vu巫誣無武賦 斌賦鶻舞舞庶無 撫無颯侮務姿霧 鶻鶻 vo無母无	bu無務 u無 bu武	bu無 wu無 vu無

遇攝 開口3等 虞韻은 南北朝期에 魚韻의 -iAu/-iAu에서 분립하여 切韻音에서는 主母音이 拗介音 i·i와 韻尾介音 u의 영향으로 高位化하여 乙類 -iəu와 甲類 -iəu로 변하며, 秦音에서는 乙類 -iu와 甲類 -iu로 拗介音 i·i와 韻尾 u 사이에서 主母音이 탈락해간다. 또한 그 脣音字도 輕脣音化로 인해 -u로 변한다.

SJK는 牙喉音字와 脣音字 모두 주로 -u형으로 나타나며, 일부 -uu형이 混在한다. -u형은 拗介音과 主母音을 韻尾介音 u에 흡수시켜 1拍으로 수용한 형태이며, -uu형⁸⁾은 李京哲(2009a)에서 언급했듯이 拗介音과 主母音을 1拍的 u로, 韻尾介音 u 또한 1拍으로 수용한 형태로 판단된다.

SJK도 牙喉音字와 脣音字 모두 주로 -u형으로 나타난다. SJK는 모든 3等 開口韻에 걸쳐 乙類가 甲類에 통합된 양상을 반영하고 있으나, 유독 이 虞韻에서만 그 구별을 유지하고 있어 秦音에 있어서도 이 虞韻만이 아직 3等 甲乙類를 구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コウ拘]와 같은 -ou형, [クウ俱, フウ賦, ブウ鶻]와 같은 -uu형도 존재하고 있어 秦音에서는 -iəu가 -iu로 변하는 과도기적 단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며, [キウ駙驅]와 같이 拗介音이 前舌化

8) 虞韻의 日本漢字音은 대부분 1拍的 -u형으로 정착했지만, [隅·遇グウ]나 [敷スウ]처럼 2拍으로 정착된 것도 있으며, 어휘에 따라서 [夫婦フウフ]와 같이 2拍的 -uu형이 남아 있는 것도 있다.

하는 좀더 後期的 모습도 볼 수 있다.

SK는 牙喉音字와 脣音字 모두 주로 -u형으로 나타나며, 일부 -o형이 混在하고 있다. 먼저 脣音字의 -o형은 主母音과 韻尾介音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SJG보다도 오래된 층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나, 후술하듯이 SV에서도 微母字가 vu 이외에 vo로도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확정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렵다. -u형은 SJG·SJK 모두 같은 字音形이기 때문에 韻母의 字音形만으로는 輕脣音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판별이 불가능하다.

SV는 牙喉音字가 주로 -u형으로 나타나지만 -ə:u형이 混在하며, 脣音字는 모두 주로 -u형으로 나타나며, 일부 -o형, -ɔ형, -ə:u형이 混在하고 있다. 먼저 牙喉音字의 주된 반영인 -u형은 拗介音과 韻尾 u 사이에서 主母音이 탈락한 秦音을 母胎로 하고 있지만, -ə:u형은 主母音을 유지하고 있어 切韻音을 母胎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脣音字에서 -o형이 -u형보다는 古層의 반영으로 보이지만, 微母字가 vu와 vo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두 字音形 모두 秦音을 母胎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ɔ형과 -ə:u형은 主母音을 반영한 형태이므로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ST도 牙喉音字와 脣音字 모두 주로 -u형으로 나타난다. 脣音字의 -u형은 SJG와 SJK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 輕脣音의 반영여부는 판가름하기 어려우나, 聲母를 통해 輕脣音化의 반영을 알 수 있는 微母字의 [無u·wu] 등을 통해 輕脣音化한 이후의 字音形이 -u형임은 알 수 있다.

4. 尤韻의 反映

〈表4〉 尤韻 牙脣音字의 各國漢字音 比較表

聲母	SJG	SJK	SK	SV	ST전기	ST후기
見k	ク鳩久九究救 クウ鳩	キウ厩庾救鳩九 究久	구九究鳩圖厩	kuu鳩圖九久灸玖 韭救究疚廩 khuu廩	guu九 giu久	giu究
群g>k ^h	ク求仇咎旧 クウ咎旧	キウ仇舅裘瓊樞 瓊菜舅咎旧求	구仇球綵裘白 樞舅	kuu仇軌球綵裘速 綵舅咎倍白咎旧樞 kəu求球綵球	giu求旧	

非f	フ不富 フウ富	フ不富否 ホ富 フク富	부缶魚痞否富	phəu桴 phu否缶富	phu不否富	phu富
敷f ^h	フ覆	フ覆副	부副覆	phəu桴 phu覆 pho副	phu覆	
奉v>f ^h	ブ浮桴負阜婦復 ボ浮 ブウ浮負阜婦復	フ婦復負浮阜 フウ復	부負蝸婦阜莽 浮桴	phu浮桴桴婦負負 阜 phuu復 phəu莽罟	bu婦浮 phu阜	phu負
明m> ^m b	ム牟謀鉞梓矛 モ牟	ボウ蝮	모謀矛眸鏊麤 모鏊	məu牟眸眸麤	bu牟	

流攝 開口3等 尤韻은 切韻音까지 -iəu이었던 것이 秦音에서는 乙類 拗介音 i가 i로 前舌化하고 韻尾 u 사이에서 主母音이 탈락하여 -iu로 변한다. 또한 그 脣音字 경우 明母字는 切韻音 -miəu에서 秦音에서는 乙類拗介音 i를 脫皮하고 ^mvəu로 변하며, 나머지는 輕脣音化로 인해 -u로 변한다.

SJG는 牙喉音字와 脣音字 모두 주로 -u형으로 나타난다. 단지 牙喉音字와 脣音字 모두 2拍의 -uu형⁹⁾이 혼재하는데, 이는 李京哲(2009a)에서 언급했듯이, 주로 2拍 이하로 漢字音을 수용한 日本漢字音에서는 原音에서 尤韻이 [介音+主母音+韻尾介音]과 같은 重母音의 구조였기 때문에 虞韻의 경우와 같이 이를 1拍으로도 2拍으로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SJK는 牙喉音字가 -iu형으로 나타나며, 脣音字는 明母만이 -ou형으로, 나머지는 -u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秦音에서의 輕脣音化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K는 牙喉音字가 -u형으로 나타나며, 脣音字는 明母만이 -o형으로 나타나며 나머지는 -u형으로 나타난다. 脣音字는 明母만이 -o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SJK의 -ou형처럼 다른 脣音字의 -u형과 다르기 때문에 秦音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나머지 -u형이 輕脣音을 반영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SJK처럼 脣音字에 明母와 나머지 脣音字 聲母의 구별이 존재하지만, 나

9) 현재는 [富貴フウキ]정도에서 2拍의 -uu형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머지 聲母의 -u형은 SJG와도 같은 형이며, SK의 牙喉音字 -u형과도 같은 字音形이기 때문이다. 牙喉音字의 -u형은 甲類의 -ju형과 그 拗介音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甲乙類 모두 -iu형으로 나타나는 SJK보다 이전의 층이며, 또한 牙喉音字와 같은 字音形인 脣音字의 -u형도 그와 같은 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SV는 牙喉音字가 주로 -uu형으로 나타나지만 -əu형이 혼재하며, 脣音字도 -u형과 -uu형, -ɔ형, -əu형 등 여러 字音形이 혼재한다. 牙喉音字의 -uu형을 통해 먼저 SV에서는 SK와 달리 同一母音의 연속이 字音形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SV에서는 3等 甲乙類의 구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牙喉音字에서 主母音을 반영한 -əu형이 秦音 이전의 층을, -uu형이 秦音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脣音字의 非·敷·奉母에서는 牙喉音字의 重母音과 달리 單母音의 -u형이 輕脣音化를 반영한 것이며 -uu형이 輕脣音化 이전의 층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明母字는 秦音에서 輕脣音化하지 않았기 때문에 -əu형이 秦音의 반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非·敷·奉母의 -əu형은 明母와 같은 字音形으로 主母音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秦音 이전의 층을 반영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ɔ형 역시 유사한 층을 모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재차 정리하면 非·敷·奉母의 -u형이 秦音을 반영한 것이며 -uu형이 그 바로 윗층에 해당하고 -əu형과 -ɔ형은 -uu형보다도 오래된 층을 母胎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SV는 단순히 秦音을 母胎로 한다고 할 수 없으며 SK처럼 秦音 이전과 이후의 여러 층을 포함하는 複層的 字音體系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ST는 牙喉音字가 주로 -iu형으로 나타나며, 脣音字는 -u형으로 나타난다. 牙喉音字의 [ɹguu]의 예에서 ST에도 SV와 같이 同一母音의 연속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脣音字는 -u형은 輕脣音化한 秦音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輕脣音化 이전의 층을 반영했다면 脣音字도 -uu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 聲母別 反映 樣相

各國漢字音의 重脣音과 輕脣音에 해당하는 各 聲母別 반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聲母	MC ¹⁰⁾	SJG	SJK	SK	SV	ST전기	ST후기
幫	p	ϕ	ϕ	p·ph	b	p·ph·b	b·p
滂	ph	ϕ	ϕ	p·ph	p ^h	ph·b	ph·b
並	b>ph	ϕ	ϕ	p·ph	b	b·p·ph	b·p·ph
明	m> ^m b	m	b	m	m	m·b	b
非	f	ϕ	ϕ	p·ph	ph	ph·b·h	ph·p
敷	ph>fh	ϕ	ϕ	p·ph	ph	ph·h	ph·p
奉	v>fh	ϕ	ϕ	p·ph	ph	b·ph	p·ph·h
微	ṃ> ^m v	m	b	m	v	b·o·m	w·u·b

SJG와 SJK에서는 그 聲母에 있어서 重脣音과 輕脣音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SJG는 唐代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지만 SJK에서도 그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日本語의 音韻體系上, p·m계의 重脣音과 f·v계의 輕脣音의 音韻論的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SK에서도 聲母에는 重脣音과 輕脣音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먼저 韓國語의 音韻體系上, p·m계의 重脣音과 f·v계의 輕脣音의 音韻論的 구별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SK의 母胎가 唐代 이전을 주층으로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만일 SK가 秦音을 母胎로 한다면 ST 등에서 볼 수 있는 hw, 즉 韓國語의 [화·후]와 같은 [히]을 사용한 表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대외래어의 表記에서도 영어의 f는 [프]로 表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file을 [파일] 이전에 [화일]로 表記했던 것처럼 [히]으로 表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SV에서는 重脣音과 輕脣音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重脣音은 幫母 b, 滂母 ph, 並母 b, 明母 m으로, 輕脣音은 非母 ph, 敷母 ph, 奉母 ph, 微母 v로 나타나, 幫母 b/非母 ph, 並母 b/奉母 ph, 明母 m/微母 v로, 幫·敷母 이외에는 重脣

10) MC는 Middle Chinese, 즉 中古音을 의미하며, >는 中古音 내의 音韻變化를 의미한다.

音과 輕脣音을 구별하여 表記하고 있다. 베트남어에 f가 音韻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非·敷·奉母를 전체적으로 有氣性을 가진 ph로 表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次淸字인 幫·敷母는 같은 ph로 그 구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T에서도 f가 音韻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重脣音과 輕脣音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b, p, ph가 혼용되고 있다. 단지 微母에서는 b 이외에 hw, w, u, o 등 h나 母音으로 轉寫한 형태를 통해 輕脣音化의 반영을 확인할 수 있다.

Ⅲ. 結論

지금까지 秦音에서 輕脣音化한 10개韻 중에서 陰聲字에 해당하는 4개韻에 대해 各國漢字音의 比較分韻表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日本 吳音은 南北朝期の 南方系 字音을 母胎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輕脣音을 반영하지 않는다.

2) 日本 漢音은 日本語의 音韻體系上 p계의 重脣音과 f계의 輕脣音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聲類에서는 輕脣音의 반영이 나타나지 않지만, 韻類에 輕脣音을 명료하게 반영하고 있다. 尤韻에서는 牙喉音字와 脣音字의 字音形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韓國漢字音은 聲母에서는 輕脣音의 반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韻母에는 輕脣音을 반영한 층과 輕脣音을 반영하지 않은 층이 混在하지만, 輕脣音을 반영하지 않은 층의 빈도가 훨씬 높다. 尤韻 明母의 -o형은 秦音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音形으로는 SK가 秦音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베트남漢字音은 聲母와 韻母에서 모두 輕脣音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聲母에서는 幫·並母를 b로, 非·奉母를 ph로 변별하여 수용했다는 점, 그리고 明

母를 m으로, 微母를 v로 수용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단지 일부 輕脣音化 이전의 층이 混在하고 있다. 微韻의 -i형, 廢韻의 -ε형, 虞韻의 -o형과 -u형, 尤韻의 -u형은 輕脣音化를 반영한 字音形이며, 微韻의 -ji형, 虞韻의 -ɔ형과 -ə:u형, 尤韻 非·敷·奉母字의 -əu형과 -uu형은 輕脣音化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하는 字音形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秦音을 母胎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 SV에 대해서는 각 聲母·韻母별 검토를 통해 그 母胎의 判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생긴다.

5)티벳漢字音은 聲母와 韻母에서 모두 輕脣音을 반영하고 있다. 聲母에서는 微母가 o, u, w 등의 母音으로 나타나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微韻의 -i형은 輕脣音化를 반영한 字音形이며, 微韻의 -ji형과 -e형은 輕脣音化 이전의 층을 母胎로 하는 字音形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權仁瀚(2005) 『中世國語漢字音音訓集成』제이앤씨.
- 김정빈(2005) 『廣韻輕脣音九部に 있어서의 韓國漢字音의 특질에 대하여-일본오음과의 비교를 통해서-』 『口訣研究』第15輯, 口訣學會, pp.133-171.
- _____ (2007) 『일본 오음 연구』책사랑, pp.372-530.
- 김지환(1998) 『현대 한(韓)·월(越) 한자음의 비교 및 대조-초성자음의 대응을 중심으로-』 『언어연구』제17집,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pp.1-25.
- 文璇奎(1965) 『廣韻에 의한 脣音字 聲母 變化攷』 『국어국문학』제30집, 국어국문학회, pp.85-105.
- 朴炳采(1971) 『古代國語의 研究 音韻篇』고려대학교 출판부, pp.112-262.
- _____ (1990) 『古代國語의 音韻比較研究』고려대학교 출판부, pp.40-100.
- 李京哲(2002) 『四類介母의 합류시기에 대하여』 『日本文化研究』第7輯, 韓國日本學協會, pp.455-474.
- _____ (2003) 『中古漢語 韻尾體系의 再考』 『日語日文學研究』第44輯, 韓國日語日文學會, pp.165-185.
- _____ (2005) 『佛母大孔雀明王經字音研究』책사랑, pp.244-249.
- _____ (2009a) 『日本漢字音의 字音形에 나타나는 拍의 관여에 대해서』 『日本語學研究』第25輯, 韓國日本語學會, pp.129-141.
- _____ (2009b) 『中古漢語 撮口呼의 音韻 再考-韓日 漢字音의 例를 중심으로-』 『日本

- 研究』第40號, 韓國外國語大學校日本研究所, pp.297-309.
- _____(2012) 『韓國漢字音의 輕唇音化字 반영여부에 관한 考察-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중심으로-』『日本學研究』第36輯, 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pp.323-343.
- 李潤東(1987) 『李朝中期唇音聲母에 관한 研究』『국어교육연구』제19집, 국어교육학회, pp.1-29.
- 李春永(2008) 『輕唇音 분화 및 어음변천에 대한 小考』『中國語文學論集』第51號, 中國語文學研究會, pp.85-104.
- 林東錫(1991) 『漢語에 있어서의 ‘四呼’와 介音에 의한 音韻 變化 研究』『건대학술지』제35집, 건국대학교, pp.127-153.
- 伊藤智ゆき 저, 이진호 역(2011) 『한국한자음연구 본문편』역락, pp.187-383.
- 榎木久薰(1989) 『光明真言土沙勸信記の字音について』『鎌倉時代語研究』第12輯, 鎌倉時代語研究会, pp.215-284.
- _____(1998) 『高山寺藏寛喜元年識語本新訳華嚴經加點字翻刻並びに分韻表』『鎌倉時代語研究』第21輯, 鎌倉時代語研究会, pp.182-270.
- 大島正二(1981) 『唐代字音の研究』汲古書院, pp.152-216.
- 岡本勲(1991) 『日本漢字音の比較音韻史的研究』桜楓社, pp.510-591.
- 小倉肇(1979) 『金光明最勝王經音義字音攷(II)』『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第41号, 弘前大学, pp.1-10.
- _____(1995) 『日本吳音の研究』新典社, pp.440-455, 617-643.
- 河野六郎(1979) 『資料音韻表』『河野六郎著作集2 中国音韻學論文集』平凡社.
- 高田時雄(1988) 『敦煌資料による中国語史の研究』創文社, pp.303-419.
- 佐々木勇(1982) 『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日本漢音の研究 資料篇』汲古書院.
- 沼本克明(1982) 『漢音と唐代輕唇音化』『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日本漢字音に就いての研究』武蔵野書院, pp.850-895.
- _____(1995) 『観智院本類聚名義抄和音分韻表』『日本漢字音史論輯』築島裕<編> 汲古書院, pp.125-186.
- 平山久雄(1967) 『唐代音韻史輕唇音化問題』『北海道大学文学部紀要』第十五輯第二卷, 北海道大学文学部, pp.2-59.
- 水谷真成(2003) 『上中古 사이에 있는 音韻史上의 몇 가지 問題』『口訣研究』第10輯, 口訣学会, pp.253-284.
- 三根谷徹(1993) 『中古漢語と越南漢字音』汲古書院, pp.393-496.
- B. Karlgren(1985) 『中国音韻學』(李敦柱 譯), 一志社, pp.95-100, 227-232.
- E. G. Pulleyblank(1984)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SITY OF BRITIS H COLUMBIA PRESS. pp.60-128.
- Le, Tuan Son(2008)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한자음 비교 연구-성모를 중심으로-』『인

문과학연구』제10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39-64.

_____ (2009) 『한국어와 베트남한자음의 운부모음에 관한 대조 연구』 『인문과학연구』第11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90-141.

William H. Baxter(1992)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Mouton de Gruyter, pp.61-86.

- ❖ 투고일 : 2012.06.30
- ❖ 심사일 : 2012.07.24
- ❖ 심사완료일 : 2012.08.06